여의도 코스모스 꽃길

박 일 순 멜라니아
호스피스 봉사자(여의도 성모병원)

이른 아침 8시 20분에 집을 떠나 일주일에 2번 올림픽 대로를 달려 병원으로 갑니다.

햇수로는 17년째.

안녕하세요?

현재 여의도 성모병원 호스피스 총회장을 맡고 있는 박일순 멜라니아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고통 받고 힘들어하는 환자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호스피스를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성모병원을 택한 이유는,

강남 성모병원은 교통이 좋아 봉사자가 많았는데, 여의도 쪽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 "주님! 나의 눈빛, 표정, 말 한마디, 손길 하나하나가 오늘 만나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63빌딩 방향으로 달립니다.

모퉁이를 막 돌아서면 나타나는 형형색색의 코스모스. 나는 탄성을 지르며 좋아합니다.

"와… 이 신선한 기쁨."

빨강 노랑 흰색 자주색 꽃들이 부드러운 바람에 살랑거리며 나에게 손을 흔드는 듯이 보입니다.

스치는 시간은 짧지만 내 마음은 각각의 꽃 색깔만큼이나 즐겁고 행복합니다.

300m쯤 길게 이어진 꽃 길.

환자들도 이 아름다운 꽃밭에 나와 산책하며 아픈 고통을 잊고 용서와 화해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53세 된 안젤라씨를 방문하는 날입니다.

두 달 전부터 찾아가기 시작한 안젤라씨는 대장암이 간과 뼈 또 인후쪽까지 전이된 말기 암 환자입니다. 혈액 수치가 많이 떨어졌고 황달과 흑달로 온몸이 까맣고 눈은 샛노랗습니다.

먹지를 못 해 몸은 앙상하고 손발은 통통 부어 혈관이 숨어버렸습니다. 환자는 힘이 들어 괴로운 신음소리만 냈고 하혈이 계속 되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은 상태가 위험하다며 식구들을 소집했고, 군대 간 아들까지 오게 했습니다.

임종시간이 가까이 왔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를 방문하러 가는 길입니다.

병실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갔는데 눈 앞에 펼쳐진 상황에 나는 그만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는 안젤라씨를 보는 순간,

나는 아무 말도 못 하고 놀란 얼굴로 서있기만 했습니다.

환자가 미소를 지으며 눈을 또랑또랑하게 뜨고

"봉사자님, 어서 오세요. 놀라셨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제가 안 본 요 며칠 사이에 참으로 많은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물을 마셨고, 미음도 먹고 싶어 먹었고, 오늘은 죽까지 먹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힘이 없어 말도 제대로

못하고 눈꺼풀이 무거워 눈을 뜨지도 못 했는데….

이 날 안젤라씨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결인지 생시인지 비몽사몽 있었던 일과, 꿈 속에서 만난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오빠 이야기.

오빠는 살아생전에도 말이 없는 조용한 성격이었는데 꿈에 나타나 자기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안젤라씨를 보고 씩- 웃고 갔다고 합니다.

그 뒤로 물과 미음이 먹고 싶었고, 정신이 들더라고 했습니다.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하는 안젤라씨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나는 이야기를 들으며 부종이 심한 왼쪽 발을, 어른 허리만큼 팽팽하게 부어있는 다리를 심장을 향해 쓸어 올리는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몽우리가 풀려 다리가 쭈글쭈글해졌습니다. 부기가 쏙 빠진 다리를 보고 안젤라씨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어려운 항암치료도 의연하게 잘 받고 혈관을 못 찾아 애 쓰는 간호사 선생님에게 오후에 다시 와서 찾으라고 친절하게 이야기 해주는 그녀.

나는 타월에 따뜻한 물을 묻혀 아이 다루듯 조심스럽게 앙상한 온 몸을 닦아 주고 머리를 감겨 주었었습니다. 얼룩진 시트를 반으로 접어 교체해주고, 숨만 크게 쉬어도 하혈을 펑펑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끔히 처리해 주었습니다.

환자가 깨끗함과 보송함을 느끼는 것은 큰 기쁨이지요.

이날 환자는 나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말없이 눈을 감더니 "천사같은 모습으로 나에게 와서 온갖 것을 웃는 얼굴로 해주니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내가 아파 봉사자들에게 도움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 내가 아파서 다행이지. 내 가족들 내 자식이 아팠더라면 어찌할 뻔 했느냐"하며 자식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했고, 아프기 전에는 레지오와 성소후원회, 빈민 공동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상황을 이야기 했고, 쓸데없는 말을 해서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며 사죄한다고 꼭 그렇게 안해도 되었을 일들을 뒤돌아 본 삶이 너무도 부족하고 후회스러운 일이 많았다며 울먹였습니다.

분위기는 숙연했고 나는 "일 할 때는 더 하고 싶어서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지만 대화로 풀면 안 풀리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고의적으로 큰 행사를 방해한다던가 빠지면 안 될 위치에 있으면서 빠졌다던가 하는 행동만 아니면 하느님도 그 때 사정을 다 아실 겁니다." 하고 다독거려줍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언제 데려 가시든, 아니면 살려주시든지 하느님 뜻에 의탁하겠다는 그녀. 묵주기도를 드릴 때 같이 따라하니 힘이 들어 입꼬리에 거품이 일면서도 기도에 열중하는 그녀.

좋아한다는 성가를 불러주니 같이 따라 부르다가 목이 메어 흐느끼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 주면서 나도 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이 날 안젤라씨의 병실을 나오면서 나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열정이 많은 그녀.

이야기 중에 삼종기도가 나오면 대화를 중단하고 두 손을 모으는 그녀. slava의 아베마리아를 즐겨 듣는다는 이 환자에게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외롭고 쓸쓸한 마음, 고통의 마음을 갖게 하지 마시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생을 살면서 잘 한 일, 주님 기쁘게 한 일만 기억하시어 당신의 크나 큰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드리며 나오는 나의 발걸음은 부드러운 바람에 흔들리는 꽃송이처럼 훈훈하고 벅찬 감동에 휩싸여 한 송이 코스모스 꽃이 됩니다.